시 집

복받은 삶의 노래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 례

축복받은 새해 2021년이여 ································ (1)
그이가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다 ························ (4)
운명의 하늘 ·· (7)
내 조국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 (10)
백두의 서리꽃이 속삭인다 ································ (13)
겨레의 지성이 모인 곳에서 ································ (15)
《유일무이》 ··· (18)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서사시) ········· (21)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리라(장시) ········· (48)
창창하여라 조선의 미래여(장시) ······················ (59)
더 밝게 웃어라(시초) ·· (71)
꽃다발서정(시초) ·· (81)
평범한 사람들이 엮어준 노래(련시) ···················· (87)

시

축복받은 새해 2021년이여

리 철 준

엄동의 강추위 강산을 얼구어도
2021년 새해의 첫아침
어버이의 축복을 받아안은
인민의 가슴에 굽이치는 뜨거운것이여
격정속에 받아안은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사랑하는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 불러주신 그 정에
끝내 오열을 터뜨리는 우리들이다
모든 리상과 념원 꽃피워주실
세상 제일 위대한 수령을 모신
한없는 긍지로 부푸는 행복이다

인민의 생명 조국의 안녕을 지켜
그처럼 천만심혈 다하신 우리 어버이
그이께 진정다해 고마움의 인사
축원의 인사를 드려야 할 인민이건만
오히려 새해의 축복

온 나라 가정에 먼저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 가셔주시려
남먼저 인민을 찾아가시고
기쁨의 명절이 오면 축원의 인사
제일먼저 보내주시는 어버이
아, 그이의 마음엔 언제나
우리 인민만이 꽉 차있어라

행복이면 이보다 큰 행복 있으랴
사랑이면 이보다 뜨거운 사랑 있으랴
자자구구 깊은 정 어리여있고
구절구절 사랑이 굽이치는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혹독한 시련의 찬바람 불어도
우리의 새해는 따스하여라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그이가 계시여 2021년은
온 한해 소중한 행복의 꽃 활짝 피여나리라

세월의 풍파에도 오직 변함없이

원수님만 믿고 받들어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
이해에도 솟구치는 충성의 불길로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리라

아, 어버이의 축복으로 따뜻하고
그이께 충성다할 맹세로 뜨거운
뜻깊은 새해여
더 큰 승리 더 아름다운 행복을 안아올
2021년 영광의 열두달이여!

시

그이가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다

리 송 일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온 나라에 끓어넘치는 격정의 파도
아,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이여 기쁨이여

넘치는 이 행복 꽃으로 피우면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여나리
가슴을 치는 격동 노래로 울리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퍼지리

조선로동당 총비서!
불러 숭엄한 그 부름엔 있어라
그이 품에 안겨 우리가 누려갈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
보다 아름다울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다시 목메여 그 부름 불러보면

산악처럼 든든해지는 굳세인 믿음이여
그 어떤 천지풍파 휘몰아친대도
두려움없고 주저가 없을
신심과 용기가 백배로 용솟음치거니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천만자식의 운명 지켜줄수 있기에
오직 그이만이 내 조국을
이 행성우에 위대한 나라로 빛내실수 있기에
다함없는 지지와 신뢰
뜨거운 진정으로 인민이 높이 떠받든
아, 조선로동당 총비서

얼마나 눈부실것이냐
인민을 이끌어 승리의 년륜만을 아로새길
김정은시대 황홀한 그 전도는
얼마나 기세충천할것이냐
력사의 역풍 쳐갈기며 질풍노도쳐가는
강대한 조선의 그 기상은

오늘의 이 감격 이 격정
세월의 끝까지 변함없는 충심으로 이어
더 잘 모시리라 우리의 어버이

일터마다 비약의 나래 펼치며
세세년년 기적으로 새 승리 안아오리라

끝없는 흠모의 정 터치며
인민이 따르고 받드는 우리의 령도자
억척으로 인민을 품안으시고
영광과 번영의 휘황한 력사 수놓으시는
그이를 모셔 우리 행복 무궁하리라
오, 그이가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다

시

운명의 하늘

김 대 룡

인민을 위하시는 그 진정
우리 잘 알고있다 했지만
그 간곡함 미처 다는 몰랐던가
당 제8차대회 뜻깊은 연단에서
김정은원수님 하신 뜨거운 말씀이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겠다 하신 그이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그이는 엄숙히 선서하시였나니

아, 운명의 하늘!
가슴을 치는 절절함에 열렬함에
솟구치는 눈물 걷잡지 못한 인민이여
목메임에 격정 터칠수 없은들 무얼 하랴
소리없는 이 눈물이
가장 진실한 격동의 용암으로 끓지 않느냐

늘 인민을 심중에 안고 사시는 그이
마음도 많이 쓰시고 애도 많이 태우시며
지켜주고 품어주신 은덕 하늘과도 같건만
오히려 자신의 운명의 하늘이라
인민을 높이 떠받들어주신 원수님

그이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을 두고
말해보자 인민이여
어버이로 령도자로 받들어모셔야 할
그 세월의 하루하루가
그이께서 인민을 받들어오신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나날 아니였던가

재난을 당했어도 불행을 모른 인민
그 웃음과 노래도 그이 주신것
설사 하늘이 무너져내린대도
무너지지 않을 황홀한 보금자리
이 땅우에 펼쳐진 전설도 그이 주신것

다시 묻노니 말해보자 인민이여
행복이라면 이렇듯 인민을 위하시는
그 다심하고 극진한 정에
감복의 눈물 마를줄 모르는것 아니던가

그 정과 사랑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바로 그것이 최상의 행복 아니던가

아,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끝없는 하늘 가득히
인민은 어버이를 길이 노래하리라
그 품에서 천만년 길이 살리라

시

내 조국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김 송 림

눈굽은 뜨겁게 젖어옵니다
당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
중대정책을 취해주신 **김정은**원수님
베푸신 그 은정 너무도 꿈만같아

어느 어머니가
꿈엔들 생각해보았습니까
남들 같으면 엄두도 못낼
오늘의 준엄한 격난속에서
한두자식도 아닌 온 나라 아이들에게
젖제품, 영양식품이 차례지게 된다고

정녕 다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어버이의 그 진정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 품든다면

천만자식 모두 키우는데
어느만큼 품을 들여야 합니까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 영양식품 안겨주자 하실 때
감격의 눈물 쏟은것은
우리 어머니들뿐이였습니까

풍요한 세월에 베푸는 사랑이라면
이렇듯 우리 가슴
솟구치는 격정에 목메이겠습니까
그렇듯 불같은 열과 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시는 사랑의 그 세계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거니

다심하신 어버이의 그 손길아래
우리의 아이들 자라납니다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무럭무럭 씩씩하게
사랑의 젖줄기로

몸도 마음도 억세여지며

그렇게 자란 우리의 아이들
앞날의 주인되여 가꿔갈
이 땅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입니까
그들이 빛내여갈 이 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눈부실것입니까

아, 어머니들의 사랑 모두 합쳐도
정녕 비길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진할줄 모르는 그 사랑의 품에
우리 아이들이 안겨삽니다
내 조국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시

백두의 서리꽃이 속삭인다

리 송 일

눈내리는 백두에 펼쳐진 설경
장관이로다 백두의 서리꽃들
아지마다 소담히도 피였구나
울울창창 밀림은 그대로 서리꽃바다

백두군마에 박차를 가하시며
생눈길 헤쳐가시던 원수님 반겨
다투어 12월에 피던 서리꽃들
그 감격 노래하자 오늘도 피였는가

위대한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서리꽃 피워 맞이하던 천리수해여
묻노니
그날의 정가로운 서리꽃은
조선을 책임지신 그이께
백두가 피워드린 경의의 꽃이였더냐

청봉에 가면 청봉의 서리꽃이

무두봉을 찾으면 봉우리의 서리꽃이
내 마음에 속삭이여라
빨찌산의 피어린 력사 뜨겁게 안아보시며
그이 철석의 혁명신념 다지시던 이야기

백두산밀영 고향집뜨락의 서리꽃들아
너희들은 알고있으리
들리시고싶은 심정 사무치시건만
장군님 강국념원 이루고 들어서리라
결연히 발걸음 돌리시던 그이 이야기

아, 드넓은 항일전구 그 어디나 피여
변치 않던 투사들의 신념
이내 뼈속깊이 새겨주고
살아도 죽어도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인생 무엇인지 속삭이는 서리꽃

걸음걸음 혁명열로 불타는 행군길에
백두의 서리꽃들 속삭이여라
수령님 따르던 항일투사들처럼
원수님 따라 끝까지 가라고
변함없는 충성의 꽃으로 피여나라고

시

겨레의 지성이 모인 곳에서

리 철 준

선뜻 발걸음 뗄수 없구나
여기 룡악산기슭
겨레의 지성이 모인 대전당
민족의 만년재보 국가선물관
한점한점 선물들앞에서

위대함에 걸출함에 매혹된 마음들이
하늘같은 사랑과 불변의 진리에
따라서는 진정과 숭배심이
티없는 정성의 결정체 이루었구나
절묘함과 기묘함의 극치 이루었구나

상처를 입힐가보아
천연수림속 수십일간 지켜
옹노로 잡아 마련한 《범가죽의자》
피나무토막들 하나하나 쌓아올려
기묘하게 만든 투각장식꽃병 《조선의 행운》

내 숙연히 머리를 들어
한점한점 선물들에 마음을 세운다
북만이 아닌
남녘과 해외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
가슴벅차게 안아본다

한없는 경모의 마음
십장생을 상징한
《금거부기》와 《송학》
흰빛으로 눈부신 《장군옥바위》
천연홍수정 《세계를 비치는 태양》…

상상조차 할수 없으리라
온넋이 끌리는 매혹이 없다면
낳을수 없는 저 지성의 정화
돈의 가치로는 계산할수 없으리라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무한대한 숭배심의 높이를

흘러넘치여라
한점한점의 선물들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드린

겨레의 절절함이여
솟구치는 가슴속진정이여

진정 인품에 덕망에
겨레를 품어안는 사랑에 끌린
진심의 고백이 아닌가
매혹과 흠모가 낳은
티없는 마음들이 아닌가

오, 격정에 젖은
나의 눈앞에 뜨겁게 안겨든다
국가선물관 저 한점한점의 선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 영원히 높이 모시리라
김정은원수님 충정다해 받들리라
세차게 박동치는 겨레의 붉은 심장처럼

시

《유일무이》

김 송 림

만대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국보 국가선물관
감상록의 갈피에 씌여있어라
한 외국인참관자가 남겼다는
류다른 네 글자 《유일무이》

국가선물관이 일떠서게 된 사연
선물들에 어린 가지가지 이야기
꿈속에서 듣는듯 경탄속에 돌아본 외국인
흥분된 자기의 심정
단 네 글자로 피력했다는 감상록의 글

절세위인들께 드린 흠모의 결정체
백옥같은 지성깃든 한점한점의 선물들
그 정교함과 우아함에 터친 탄복이던가
선물들의 가치 황금의 무게로 가늠해보려던
잘못된 생각의 깨달음이였는가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더라
민족이 삼가 올린 이 선물모두를
인민의 재부로 돌려주신 수령님들처럼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자신께 드린 선물들도 고스란히
여기 국가선물관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에

황금만능의 세계에서 온 그
놀랍기만 했어라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다더냐
자신이 받은 진귀한 선물들
한점도 곁에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민에게 돌려주신 이런 대성인들이

받은 충격 흥분된 심정
그대로 쏟은 글이기엔
너무도 짧은 네 글자
허나 그렇게밖엔
달리는 표현할수 없었던 그 심정

《유일무이》
길지 않은 이 네 글자에 울려오누나
절세의 위인들께 터친

다함없는 매혹과 칭송의 메아리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에 대한 부러움의 격찬
오, 세상에 이런 국가선물관은
조선에만 있어라!

서사시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김 대 룡

1

밤 깊은 밤
여기 대동강기슭의 육아원, 애육원도
고요가 휘감고있구나
그 정적을 간간히 흔드는 고르로운 숨결
쌔근쌔근 원아들은 꿈나라로 갔으리라

허나 섣달그믐밤
굳잠에 들었으리라 했던 원아들
왜선지 잠에 들지 못하고있다
래일이 명절이여서?
기다려 기다린 설명절이여서?

하늘엔 별빛이 총총
잠방의 원아들 눈빛도 총총
누가 알랴 그들이 잠 못드는 리유를
밤아 빨리 가주려마

원아들 간절히 속삭이는 깊은 밤

그들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있다
아버지를 그리고있다
설날이면 자기들 보러 꼭 오겠다 하신
정깊은 약속지켜 아버지 오실
그 시간을 맘속에 분분초초 세이고있다

사람들은 다는 모르리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것이
뵙고싶어 그려보는 아버지가 있다는것이
원아들껜 얼마나 하늘같은 기쁨인지
얼마나 뿌듯한 행복이고 자랑인지

원아들은 생각했다
새집에 이사오기 전 원수님 오셨던
기쁨의 그날을
거의 1년이 되여오건만 어제런듯
생생히 떠오르는 감격의 추억이여…

아버지!
누구에게나 너무도 례사로운 부름이건만
때일찍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겐

그 부름자체가 눈물이였다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다는 그것이
저절로 주눅이 들게 하는 아픔이였다

그 아픔 그 설음 가셔주려
보육원, 교양원들 쏟은 정 얼마였으랴만
피와 살을 준 부모를 대신할
그 사랑은 누구도 줄수 없는것인가
그 정은 누구나 줄수 있는것 아니였던가

높지 않은 육아원과 애육원담장
그 담너머 세계는 온통 부러움의 세계
아버지 손잡고 엄마 등에 업히워
탁아소와 유치원가는 아이들 볼 때면
모색도 알길없는 부모들 생각에
종일 밥도 잠도 다 잊던 원아들

명절이면 더했더라
담너머 어느 유치원에서인가
요란스레 터져나오는 운동회 웨침소리
차라리 담이 더 높았으면
저 유치원이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

그러던 그곳에 아버지가 오실줄
이제는 영영 부르지도 바라지도 말아야 할
다시는 되찾을수 없으리라던
아버지란 그 부름
원아들 소리높이 터칠줄 그 누가 알았더냐

2월의 찬바람 맞으시며
소문없이 조용히 찾아오신
자애로운 어버이
너무도 꿈만같아
원장도 교양원 보육원들도
미처 인사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느새 총알같이 날아드는 원아들

— 아버지!
— 아버지원수님!

와락 달려와 넓고넓은 품에
저마다 매여달리며 안기여들며
우는 아이들 웃는 아이들
무랍없이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이의 미소는 그지없이 환하시여라

원아들이 그리웠던 아버지
그이도 애들이 몹시 그리우셨던듯
한동안 품에 안아 볼도 쓰다듬어주시며
이름은 무엇이고 몇살인가
아픈데는 없는가 다정히 물어주실 때

철따라 고운 옷 입혀주시고
맛있는 사탕과 과자, 물고기와 과일
꿀도 보내주시여 부럼없다고
아버지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아이들은 목청껏 다시 불렀다
아버지!—

애기들의 잠자는 모양
웃음속에 지켜보신 따뜻한 눈길
놀이장의 아이들과 말도 건네시며
주방을 찾아 세심히 보살핀 그 사랑
아, 육아원, 애육원이 생겨
이런 감격의 날 기쁨의 명절 있었던가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 하시던 **김정은**원수님

그 말씀에 보육원들 교양원들
두볼을 타고 줄줄이 내린 뜨거운것이여
철없는 어린것들마저
그이의 옷소매 부여잡고 품에 안기며
너무 좋아 울었고 행복해 울었다

오시여 원아들 다 품어주시고
갖가지 은정 다 베풀어주시고도
무엇인가 주지 못하신것 있어서인듯
이애들을 위해 할 일이 더 없겠는가
쉬이 발걸음 떼지 못하신 아버지

이제 가시면 언제 또 뵈올가
서운한 마음들 줄줄이 마당으로
그이따라 나서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육아원, 애육원
꼭 지어주겠노라 약속을 하시는 그이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나시는 아버지

담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는 승용차
담이 높았으면 하던 원아들
그날만은 간절히 원했더라
차라리 담이 없었으면…

그날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어느덧 10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세상에 다시없는 궁전이 솟아올랐다
평양육아원, 애육원
행복의 요람이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원아들을 위해 원수님 지어주신
제일 좋은 멋쟁이집
얼마나 대만족이시였으면 희열 터치시였으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기쁘시다고

그이 심중엔 금시 떠오르는 모습들
2월의 그날 안으셨던 원아들
눈물이 글썽해 따라나서던 그애들때문에
발걸음 얼마나 무거우셨던가
아, 그 살붙이들!

생각 같아선
철이며 옥이 순남이며 강실이…
그들모두를 다 안고 가고싶으신 마음
하지만 그러실수 없으니 안타까우시고
잘 있거라 손 흔들어주시였어도
속이 맺혀 자꾸만 돌아보시였으니

정이란 바로 이런것인가
아이들은 그토록 정을 바라고
어버이는 그처럼 정을 주고싶어하시니
그날부터 그 2월은
원수님 마음속에 늘 머물러있었고
2월의 원아들 그이 가슴에 안겨있었더라

그래서 아니더냐
제일 마음쓰이고 생각이 먼저 가닿는
원아들 위해 새집 번듯하게 지으리라
집터도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설계도 최상!
시공도 최상으로!

그 불같은 심정 안으시고
먼지 풀썩이는 건설장 찾아오시고

다시 삼복의 더위속에 오셨던 원아들의 아버지
훌륭히 일떠선 궁전앞에서
그지없는 기쁨 한껏 터치시였거니

손수 열어보신 방과 방들
스며드는 따스한 해빛은
원아들 부모없는 설음 녹여줄 그이 정인가
쓸어보신 책상이며 이부자리
살펴보신 그릇이며 놀이감들엔
그이 사랑이 어려 귀한 보물들인듯

이보다 더한 기쁨 없으신듯
시종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설날에 오시겠다고
원아들을 보러 다시 오시겠다고
사랑의 약속 남기신 우리의 어버이

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지어주리라
2월에 하신 약속
그 약속 이룬 10월에는
또다시 원아들 보러 설에 오시겠다
사랑의 약속 남기신 원아들의 아버지

어느덧 동켠하늘 희붐히 붉어지고
어둠이 차츰 묽어지는 새벽
해가 뜨니 잠방에 퍼지는 탄성
해가 뜬다 새날이 밝아온다
오늘은 아버지 오시는 설날이다

그렇다 설날이다!
그리운 아버지 오시는 날이다!
하나같이 환성을 올리는 아이들
그 환성 새처럼 날아퍼지는 하늘가에
금빛해살이 눈부시다
2015년 1월 1일이여!

2

원아들 찾아오시는 길
대기는 한껏 청신하다
어디선가 우짖는 까치울음소리
원수님의 생각은 깊으시다
기다려 마음 설레일 아이들 생각에

잠방의 이불은 얇지나 않은지
물놀이장의 물의 온도는 적당한지

설날의 음식은 무엇을 먹는지
하나하나 알고싶고 헤아려보고싶으신
어버이의 간절하신 그 심정

차는 드디여
육아원, 애육원마당에 들어서고
차에서 내리시는 그이를 향해
꽃다발을 안고 달려온 어린이들
삼가 설인사를 드리여라

청아한 목소리 구슬같은 목소리
참으로 듣고싶으셨던 아이들 목소리
기쁘게 받으시여라 꽃다발을
어버이사랑속에 큰 복을 받아안은
원아들의 인사 정겹게 받으시여라

그러시고는
다정히 볼을 쓸어주신다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축복해주시는
아 우리 어버이의 음성은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가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 하신 그이
알락달락 명절옷차림의 원아들
그이 품에 파도마냥 달려와 안긴다
아, 무지개파도이런가

— 아버지원수님!
— 아버지!

온밤 기다린 아버지이시다
오시니 기쁨에 겨운 원아들이다
그들모두를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어버이의 그 품은 넓고넓어라
하늘처럼 바다처럼

아버지를 또다시 뵈옵게 된 영광
한없는 행복에 휩싸였구나
서둘러 원아들의 춤노래 보여드리려
보육원, 교양원들 설레이는데
아이들 밥먹는 모습 보자 하신다
육아원식당에 그이 먼저 들어서신다
아이들 동그랗게 둘러앉은

푸짐한 식탁 유심히 살펴보시나니
갖가지 음식들과 과일이며 빵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그 모습 정에 겨워 자리뜰념 못하신다

그제서야 깨달았더라
어이하여 그이께서 원아들 찾아
굳이 점심시간에 오시였는지
그래서 더더욱 붉어지는 눈시울
어쩌면 어쩌면 이리도 다심하신가

주방의 그릇소독은 어떻게 하는가
소독시간은 얼마로 하는가
그뿐이랴 잠방에 들리시여선
아이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이불과 옷은 며칠에 한번씩 빨아주는가
내의는 빨아서 다려입히는가…

아버지만이 물으실수 있는 물음
아버지의 정과 사랑만이 헤아릴수 있는
다심하고 친근하신 그 물음에
원장이며 교양원, 보육원들이여
어이하여 대답 올리지 못하느냐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훤해지고 씩씩해졌다고
부모의 사랑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
밝게 웃으며 설을 쇠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 환하게 웃으실 때

그 기쁨에 배가하여지는 기쁨인가
저저마다 그이곁에 가까이 다가서려
싱갱이 안깐힘을 쓰는 아이들
으시대며 자랑하는 그 모양들
대견스레 바라보시는 원아들의 아버지

— 아버지원수님 보내주신 고운 옷 입고
원수님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꿈 꿨어요

— 물고기, 고기, 사탕하구 빵
사과와 복숭아, 꿀도 먹었습니다

철부지들 늘어놓는 그 자랑들
어이 그이 눈가에 무심히 비껴왔으랴
가슴속에 밀물쳐오는 생각이여
얼마나 자신을 아버지로 믿었으면
얼마나 아버지로 따르고싶었으면

부모가 있어야 응석도 있고
자랑도 행복도 있는것이 아이들이거늘
부모없는 고아들이라 생각한다면
머리조차 들지 못할 원아들
이렇게 설음이란 모르고있지 않느냐

아버지라 따르는 그 어린 마음들이
오히려 고맙고 반가우신 어버이
늘 속에 걸려있는 원아들때문에
마음도 많이 쓰시였건만
아이들 웃음과 바꾼 그 심혈
오히려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는 원수님

친아버지앞에서 재롱부리는 자식들마냥
원아들이 펼쳐드리는 춤과 노래
귀여우시여 환하게 웃으시고
기특하시여 박수 선참 쳐주시며
세상에 없는 희열 어버이는 느끼시는가

어느덧 공연은 절정에 올라
펼쳐진 종장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들의 새집 정말 좋다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원아들

머리숙여 큰절올려 인사드리누나
—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장내는 눈물의 바다
원아들의 눈에도 어른들의 눈에도
뜨거운 격정의 눈물
아이들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도
젖어올랐다 뜨거운것이 맺혀

공연이 끝나 그이의 품에
와락—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
숱한 살붙이들을 껴안으시고
어버이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다
아, 아버지를 모신 가족사진이런가

물어보자, 그이 품에 안겨
행복의 기념사진 찍는 아이들아
그 누가 너희들더러 고아라 할것이냐
때일찍 부모 잃어 정도 잃은 아이들이라
그 누가 동정의 눈길 보낼것이냐

그들은 고아가 아니였다
세상에서 제일 자애론 아버지를 모신

부모도 집도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러움에 바라보는
그들은 행복동이!

물어보자, 넓고넓은 세계여
이 행성 그 어디 그 어느곳에
부모잃은 아이들이 희한한 궁전에 살고
령도자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여주시는
그런 별세계, 그런 천국 있다더냐

— 오늘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일은 힘들게 하였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질줄 모르고 그냥 매여달리는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주시고
볼도 만져주시며 안아주시는 그이
어찌 원아들만 품어주신것이랴
그이는 조선의 미래를 품으신것이여라

원아들아 더 밝게 웃어라

더 높이 불러라 《세상에 부럼없어라》
너희들에겐 제일 친근하신 아버지 계신다
너희들 운명과 미래 다 맡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계신다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집
세상에 더는 없는 이 궁전에서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과 정으로
너희들 키도 크고 가슴도 넓어지려니
다르게야 말할수 있으랴
아이들아, 너희들은 원수님의 아들딸!

행복의 시간은 그리도 짧은것인가
오신 길 따라 다시 가야 하실 원수님
자꾸만 감겨도는 아이들때문만인가
아니구나 우리 어버이
자신께서도 쉬이 떠나고싶지 않으심을

이제는 낯도 어지간히 익히고
이름도 귀에 익은 귀염둥이들
하건만 이애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이 땅의 미래 더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
가셔야 할 길 후대들을 위한 길이여

먼길 떠나시는 아버지 바래워드리듯
마당으로 달려나온 아이들
눈물은 글썽했어도 웃고있어라
그들의 작은 가슴엔
서운함은 있어도 서글픔이란 없기에

또랑또랑 울리는 목소리
하나같이 약속한듯 울리는 목소리
— 아버지원수님, 또 오십시오!
차는 멀어져가고 그뒤를 따라 울리는
오, 메아리 간절한 소원의 메아리여

3

품에 안아 키워주는 부모의 사랑
너무도 극진해 너무도 따뜻해
세상은 그보다 더한 사랑 없다 했건만
그 어느 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
만인을 다 울게 하는
원수님의 사랑이여

그 사랑을 어찌
대동강기슭의 물결만 전하는것이랴

강원땅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
동해의 파도도 소리높이 전하노니
들을수록 그 사연 가슴을 적시누나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의 궁전 준공식이 열리는 날
김정은원수님 오시였어라
새집들이 맞는 원아들 보고싶으시여
그들의 청아한 웃음소리 듣고싶으시여

볼수록 황홀한 멋진 보금자리
너무 좋아 원아들껜 기쁨의 날
가슴가득 희열이 차오르시여
자신에게도 더없이 행복한 날
하늘도 경사를 알아 그리도 쾌청한가

마당에서 아이들 노래도 들으시며
서서도 보시고 걸으면서도 보시며
그처럼 대만족해하신 원아들의 어버이
어이 알았으랴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 하실줄은

— 아니,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누군들 놀라지 않으랴
누군들 생각인들 했으랴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법이거니
충격과 놀라움으로
사람들 얼굴은 굳어지는데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
뜨겁게 하시는 원수님의 말씀

그 간곡하신 말씀에 젖어든 눈굽
원아들 준공테프 끊는 순간엔
후더운것 그 눈굽으로 흘러내렸나니
아, 작은 손 애어린 손으로
행복의 집에 들어서는 테프를 끊은
복받은 아이들아 원수님의 아들딸들아

아느냐, 너희들이 잡은 가위
어느분이 드셔야 할 가위였던줄을
어른이 되면 철이 들어 다 알겠느냐
테프를 잡고선 장령도 원장도 보육원도

아니 온 원산땅이 눈물의 바다!

생각해보라 이 아이들
아버지도 엄마도 없는 이 아이들
저 멀리 이역땅의 운명들이였다면
이렇듯 미처 다 알수도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수 있다던가

애들아, 다시 잡아보자 그 손을
누구나 쓸고 쥐여보는 원아들의 손
이 땅이 아니라면
동냥의 쪽박을 그 손에 쥐였으리
서러움의 눈물 그 손으로 훔치였으리

어디서나 볼수 있는 가위이건만
너무 뜻이 깊어 소중한것이여
원수님 축복해주신 창창한 미래
너희들은 그 미래앞에 드리운
행복의 테프를 끊은것이다

그래서 아니랴
낳아준 부모는 비록 없어도
원아들 정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정에 목메여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것은
아버지라 부르며 안기여드는것은
세상에서 자기들 제일 위해주시는분
극진히 돌봐주고 아껴주시는분
철따라 입는 새옷이며
때식 맞춰 마주앉는 식탁의 음식 가지수까지
일일이 헤아려 마음도 많이 쓰시는분

그 정이 고마워 가슴에 미쳐와
원수님만 뵈오면 울먹거리는 원아들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울면 아버지마음 좋겠는가고
교양원, 보육원들 말을 해놓고도
오히려 저들부터 눈물 참지 못하누나

설날에 오신 아버지
추운 날씨인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두손으로 자기들 손 감싸주실 때
오히려 더 차거운 아버지의 손이였다고
만경대의 원아들 울며 끝을 못맺은 이야기

평양초등학원 원아들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아도

그이 다정히 물어주시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음성 처음으로 들었노라고
그래서 그이앞에서
저도 몰래 눈물이 흐르고 흘렀다고

아, 그 눈물은
이 나라의 원아들만이 흘릴수 있는 눈물
지켜주시고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고 꽃피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무한한 행복의 눈물

그래서 아니더냐
세상에서 제일 친근하신 아버지
부디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
그들이 바라는 애오라지 하나의 열망

그 소원 그 열망을 절절히 아뢰인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는 평양초등학원의 원아였어라
원수님 학원에 오셨던 그날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도 흘렸다는

원아들 공부하는 교실에 들리시여
글씨도 보아주시고
민들레학습장 질도 가늠해보신 원수님
교실을 나서시려는데
문득 그이 귀전에 들려오는 처녀애의 목소리

— 아버지원수님, 앓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울려나온 떨리는 목소리
가시던 걸음 멈추신 원수님
돌아서시여 이윽토록 보시였어라
두손을 가슴에 꼭 모아쥐고
눈물이 글썽해있는 처녀애를

친아버지에게 하는 딸자식의 부탁인가
처녀애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금시 뜨거운것이 고여오를듯
너무도 평범하고 례사로운 말이건만
원아들의 그 당부가 가슴을 울려
정깊은 눈길 떼지 못하신 원수님

어이 그 당부
원아들만 올리는 진정이라 하랴

후대들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의 사랑 그이의 은정 받으며 사는
온 나라 아이들의 제일가는 소원이거니

아, 오늘도 후대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위해
그처럼 마음도 많이 쓰시는 원수님
자애로운 그이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아이들의 긍지여 기쁨이여

그들이 즐겨 메는 소나무책가방
갈피갈피 번져가는 민들레학습장에도
철따라 받아안는 교복에도
그 긍지와 기쁨
가득 넘치고 꽃처럼 피여난다

보라
해빛밝은 교실의 창가마다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아버지 계시여 그 누구도
빼앗을수도 짓밟을수도 없는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여!

분쟁과 빈궁속에서 허덕이는 아이들
배움의 권리를 잃고
폭력과 학대의 희생물로 되는 아이들
암울한 땅에서 미래가 사그러져갈 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는
조선의 아이들 행복동이들아

어버이의 품속에 나라의 역군으로
조국의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는 후대들
우리 원수님
너희들의 앞길 축복해주시고
더 좋은 앞날 약속해주시거니

오, 마음껏 터치라
희망과 포부 아름다운 꿈을 노래하라
아버지 모시여 아버지가 계시여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은
이 땅우에 더 아름답게 수놓아지리라

장시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리라

김 영 일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수놓으시며
위민헌신의 길 이으시는 **김정은**원수님
그 려정우에 남기신 자욱자욱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사연도 많아라

그 사연 열밤을 새워 이야기하면
그이 사랑의 세계 다 알수 있으며
그 사연 노래로 엮는다면
그이 은정의 세계 다 전할수 있으랴

아,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헌신 그이의 로고
더듬어볼수록 눈물부터 앞서는 인민
삼복철날들에 있은 이야기
얼마나 우리 가슴 뜨겁게 하여주는가

어느해의 삼복철인들

그이 아니 가신 곳 있고
가야 할 길 미루신적 있었으랴
세월이여, 삼복철 그 나날들의
추억의 갈피를 번져 말하라

그 갈피에 소중히 새겨져있는
대청리의 못잊을 감탕길
피해를 입은 인민들 마음에 맺히시여
험한 길 남먼저 헤쳐오신 어버이의 자욱
흙탕이 튀여오르던 야전차여

위험하다고 안된다고
일군들의 청 그리도 간절했건만
기차로 못가면 차를 타고서라도
차로도 못가면 걸어서라도
기어이 가야 한다고 하시던
검덕의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이여

오늘도 눈에 선히 어려와라
찌는듯한 무더위를 헤치고 찾으셨던
광천닭공장의 험한 건설장
불별이 지글대는 운곡지구 종합목장…
그 건설장들에서 환히 웃으시던

그이 모습이

그 자욱은 젓갈가공공장이 일떠선
저 금산포땅에도 눈물겹게 새겨져있고
물보다 더 많은 고기들이 욱실대는
삼천의 메기양어장
그 구내길에도 력력히 어리여있거니

슬하의 자식들 천만이여서
잠시도 시름놓지 못하시는 어버이
부디 불더위를 헤치셔야만 했고
그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셔야만 했던가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찬눈비 내리고 불별이 쏟아져도
웃으며 가시는 원수님
삼복철의 그 많은 로고의 사연속에는
3년전 8월의 이야기도 있어라

례년에 없는 무더위가 몰고온 폭열
금시 땅을 녹일듯 기승부리던 그날

그날에 우리 어버이
어디에 계셨던가
어디서 하루를 보내셨던가

그곳은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 만족하게 보시며
그이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땀은 비오듯 흘러내리건만
쏟아지는 불더위를 다 잊으신채

인민들이 리용할 새형의 무궤도전차
그것이 너무 기쁘시여
해볕에 달아오른 뜨거운 동체
그처럼 정히 쓸어보시던 원수님
손잡이도 잡아보시고 의자도 더듬으시며
오래도록 내릴념을 않으셨으니

굳이 이런 무더운 날에
꼭 여기로 오셔야만 했단 말인가
공장일군들의 얼굴로 줄줄이 흐른것은
땀방울이였던가 눈물이였던가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그이 하시는 뜨거운 말씀에
더더욱 격정 금치 못했어라

우리가 드려야 할 고마움의 인사
인민이 삼가 드려야 할 감사의 인사
오히려 먼저 하시는 원수님
이때에는 이럴 때엔 무슨 말로
그이께 답례를 드려야 한단 말인가

그늘 한점 없는 한낮의 무더위속에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신 어버이
하지만 타보지 않고서는 정녕
마음을 놓을수 없으셨던가
그날 밤엔 또 시운전길에 계시였거니

도무지 더위가 사그러질줄 모르던 밤
차창을 열었어도 열풍이 흘러들던
무궤도전차에 오르신 그이
어둠짙은 거리 누벼가신줄
인민이여, 우리 그날에 다 알았던가

종일 삼복의 더위에 계시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에 겨우시랴
그 로고 심야에도 이어가시니
일군들의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이여
인민의 어버이 헌신의 그 자욱이여

어둠짙은 한밤의 거리이건만
그이의 안광엔 비껴왔어라
인민의 웃음싣고 달리는 무궤도전차
그 거리를 그려보시여
그이 창밖에 오래도록 시선 두시였는듯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무궤도전차시운전길 오르시던 그날처럼
삼복철의 폭염속에서
또다시 시운전길 오르신 그이
우리 어버이의 눈물겨운 헌신이여

그날의 인민사랑의 길 평양에만 있으랴
저 서해안의 신도와 황해남도
신의주방직공장과 화장품공장
동해안의 강원도
그 땅에도 인민들 삼가 더듬어 눈물젖는
어버이의 폭열강행군길이 있거니

초복에 접어든 북변의 량강도
삼지연땅을 찾으셨던 그날에는
감자농사에서도 통장훈을 높이 부를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이 장군님의 동상앞에 서계셨어라

—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

그렇다!
그이의 삼복철강행군길은
사랑이 없이는 갈수 없는 길
폭열보다 더 뜨거운
인민사랑의 열화와 같은 불길 안으시고
인민을 찾아가신 길
인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려 가신 길

아, 삼복철에 걸으신 그이의 걸음걸음
인민을 찾아가신 그 자욱자욱은
결코 사랑과 은정만이 어려있는것 아니구나
한몸을 기꺼이 내대시여
인민을 지켜주시고 불행을 가셔주신
어버이의 희생이 력력히 새겨져있구나

땀으로 흠뻑 적셔진 그이의 옷자락
가슴에 젖어와 인민은 울었건만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너무도 만족하시여 웃으신 어버이
세상에 더는 없는 인민의 수령이시여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8월의 삼복철
삼복철엔 현지지도를 삼가해달라는
간절한 요청 받으시고
원수님 뜨겁게 하신 말씀

— 나에게 삼복철에는
　현지지도를 하러 다니는것을
　삼가해달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하여도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
하시고 하시여도 끝없는 그 일감
쌓이고 쌓이여도 그이 락으로 여기시는
인민을 위한 일감
날이 갈수록 덜어지는것 아니더라
그이의 일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여라

그이는 이것을 행복이라 하시고
더없는 만족으로 여기시거니
그날은 또 언제였던가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들으시며
그이 뜻깊은 결심 피력하신 날은

— 《세상에 부럼없어라》로구만
참 좋은 노래요
저 노래소리를 들으니 이 노래가
우리 인민들의 실생활로
현실로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더 고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되오

이 결심 이 의지를 안으시고
오늘도 인민을 찾아가시는 어버이의 길
그 사랑의 길에 진한 땀방울을
행복의 씨앗으로 이 땅에 묻으시며
인민의 복된 삶을 끝없이 펼치시여라

삼복철은 무덥다
허나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의 정과 열은 더 뜨겁고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헌신과 로고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지나니

따르리라 받들리라
우리의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내 조국을 세상만방에 빛내주시려
불철주야 헌신을 다해가시는 그이
인민은 한마음 충성으로 모시리라

그리고 전해가리라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과 은정의 세계
그 세계에 높뛰는
위민헌신의 고결한 뜻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경륜을

오, 삼복철의 이야기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리라
인민을 위해 이어가시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불면불휴의 자욱자욱은
인민사랑의 력사로 끝없이 이어지리라

장시

창창하여라 조선의 미래여

김 대 룡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함은
웃음이고 즐거운 락이라 하건만
오늘은 너희들 품어안아 쩌릿함이여
애정어린 볼이며 머리며 쓰다듬어
생각깊은 이 마음이여

바쁜 길 재촉하는 사람들
그대들도 잠시라도 좋으니 멈추어다오
그 걸음을 아이들앞에
나처럼 그대들도 뭉클함에
젖어드는 가슴 무심하지 않으려니

어떤 아이들인가 이애들이
다만 재롱스러운 귀염둥이들인가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께 있어 제일 소중한 보배
수천수만금 천만품 다 들여서라도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아들딸들 아니더냐

그처럼 아이들 사랑하시고
그리도 아이들앞에 다심한 아버지이심을
어이 우리 모르랴만
웅심깊은 아버지마음 자식들 다 모르듯
우린 너무도 그이를 다 모르고 살아왔구나

아, 오늘도 눈에 선히 어리여와라
당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그 엄숙한 연단에서
우리의 아이들, 미래를 위해
중대정책을 내놓으신 원수님
자식가진 부모들뿐이였더냐
이 땅의 누구나 눈물 걷잡지 못했거니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회의장에 울려퍼진 어버이의 그 음성
너무도 간곡해 너무도 극진해

참가자들 누구나 눈굽을 문지르고
전원회의소식이 알려진 그날부터
온 나라는 감격의 그 이야기로 설레였더라

생각은 깊어지누나
젖제품, 영양식품
이 나라 녀인들 너무도 범상히 하는 이 말이
당의 정책, 의정으로 토의되는 나라
아이들을 위함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는 나라

말해다오, 이런 나라 세상에 있고
우리의 아이들과 다름없는 아이들
그 어디에서 또 찾아볼수 있다던가
대답없는 행성이여
내 너를 더듬어 찾고싶은 곳 있나니

어드메냐 우리 수령님
안광에 비껴든 젖소떼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이들 생각하신 무연한 초원은
오늘도 푸른 벌판 눈뿌리 아득한
그 초원은 어느 이국땅에 있는것이냐

젖소떼 흐르는 그 풍경

말없이 바라보신 어버이의 심중에
무겁게 맺히던것은 무엇이였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
밤잠마저 잊고 이으신 생각은 그 하나뿐

조국에 돌아오시여서도 이어진 생각
우유문제 그보다 더 급한 일 없으신듯
당전원회의를 소집하신 어버이수령님
콩우유생산의 전망을 열어놓으시려
그처럼 심혈도 많으시였거니

첫 콩우유가 나왔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시여 너무 격정이 크시여
송수화기를 드신채로
그이는 흥겹게 부르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

그날의 수령님 기쁨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마다에
아이들의 맑은 웃음 행복이 되였고
《콩우유시간》에 웃고 떠드는 웃음소리
수령님께 있어
그보다 더한 만족과 희열은 없으셨어라

아, 《콩우유시간》
수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행복의 시간, 웃음의 시간
그 시간이 아이들 성장의 나이가 되고
뜻깊은 유년의 추억이 되였나니

그 시간을 빼앗으려
그 즐거움과 웃음을 영영 없애려
원쑤들만 악착스레 날뛰였던가
겹쳐드는 고난은 얼마나 엄혹했고
이겨내야 할 시련은 어이 한둘이였던가

사회주의운명을 판가름하는
결단과 각오의 분분초초가 흐르던 이 땅
사람들의 관심속에 멀어져가던
콩우유, 그것을 두고 우리 장군님
그토록 마음도 많이 쓰시였어라

아무리 나라가 힘에 겨워도
아이들에게만은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그이의 사랑을 싣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찾아
줄지어 달리던 콩우유차들이여

《왕차》들이 수도의 거리거리 누빌 때
그 누가 불러세우지 않았건만
저저마다 걸음 멈추고 손을 저었더라
저절로 눈가에 가져가는
손등엔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러 맺히고…

선생님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맛있게 우유를 마시는 즐거운 아이들
시련속에서도 장군님 주신 아이들 웃음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아
소리없이 삼킨것은 뜨거움의 격정

수령님 품들여 정으로 키우신 아이들
장군님 사랑속에 복받은 아이들
이제는 다 자라 어른이 되여
감동의 이야기는 추억이 되고
돌이켜보는 옛시절의 갈피에만 있다던가

아니구나 오늘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 사랑을 젖줄기마냥 이어받았어라
수령님 사랑 장군님 은정
그대로 부어주시는 **김정은**원수님
그 품에 안겨 이 땅의 아이들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가 되였구나

우리 다는 모른다
아이들의 행복, 기쁨과 웃음을 위해
심혈도 깊으신 어버이
주고싶으신 정과 사랑 열백을 넘어
언제 한번 아이들 생각
심중에서 덜어본적 있으셨던가

지금도 잊을수 없어라
콩이 없어 콩우유생산이 멈추게 되였다는
그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
쌓인 일감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으시여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신 먼 하늘

그이의 마음속엔 울려왔더라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는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 하시던
장군님의 절절하신 음성

아, 장군님의 그 말씀
자신께 간곡히 터놓으시는 당부인가
그이의 눈가엔 하늘이 비끼였어도
어려온것은 이 땅의 아이들
장군님 그처럼 사랑하시던 꽃봉오리들

얼마나 중대한 일들이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들이
그이의 명령,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는가
허나 콩문제 이는
더는 미룰수 없는
그이의 긴급사안이였거니

비상콩수송전투가 벌어졌다
군용차들이 콩을 싣고
어린이식료품공장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러시고도 마음 내려가지 않으시여

가보지 않고서는 근심 덜길 없으시여
찬눈이 내리는 12월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원수님

쌓여있는 콩무지앞에서
알알이 손에 담아드시던 잘 여문 콩알들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콩 한알한알이 너무 소중하시여
그이는 정히 손에 담아보시였으니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볼 때면
콩우유를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 하신 우리 어버이

12월에 오셨던 공장
이듬해 11월에 다시 찾아오신 그이
몰라보게 개건된 모습만이 기쁘시였으랴
늘어난 가지가지 어린이식료품
그것이 기쁘시여 환하게 웃음지으셨어라

허나 하나를 주시면

열을 더 주고싶으시고
열을 주시면 백을 더 주고싶으신것이
그이의 간절함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늘 만족을 모르시였으니

자식들이 매일 가는 탁아소와 유치원
그 수를 몸소 헤아려보시였는줄
자식들에게 차례질 우유의 량도
그이께서 친히 헤아려보시였는줄
진정 어머니들이여, 생각이나 했던가

세상에 모성애보다 더한 사랑 없어
사랑중의 사랑을 어머니사랑이라 한다지만
그 어머니사랑도 미처 가닿지 못한
더없이 극진한 정의 세계 펼쳐주신
아,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사랑은
물어보자, 무엇이라 해야 한단 말인가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의 미래, 후대들을 위해
스스로 중하를 걸머지신 원수님
허나 그것이 더없는 락이신듯
그보다 더 기쁜 행복이 없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의 어버이

바라시는것이 있다면
헌신과 심혈을 깡그리 다 바쳐
그이 그처럼 갈망하시는 숙원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과 노래
그늘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한 모습

얼마나 뜨거운 정에 떠받들려 사느냐
얼마나 열렬한 자애의 품에 안겨 사느냐
아이들아 이 땅의 아이들아
너희들은 **김정은**원수님의 친아들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복동이들이여라

설사 저 하늘끝 어디에선가
먹구름 밀려오고 찬눈비 내려도
그 찬눈비 녹여주시는 어버이 계신다
너희들 부러워할 그 무엇도
지경밖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게
어버이는 천만사랑 다 부어주신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어버이 그 품속에 만복을 누려라

미래는 너희들의것
웃음과 노래, 행복과 기쁨도 너희들의것
오, **김정은**원수님 그 품에 안겨
조선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여라

시초

더 밝게 웃어라

— 옥류아동병원을 찾아서 —

리 철 준

신비한 묘술

여기로구나
바라만 보아도 첫눈에
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는 집
울며 왔다가 웃으며 떠난다는
아이들의 집 옥류아동병원

신문과 방송, TV에서
많이도 보고 들었건만
딸애의 손목 잡고 내 처음
병원문 열고 들어서니
저도 모르게 터져오르는 탄성
환상의 세계인가 동화의 세계인가

보아라
갖가지 실내조명등 현란한 홀에서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바닥타일에
깜찍한 앵두볼 비쳐보던 딸애
한걸음 두걸음
신비경속에 빠져드는 모습

머루알눈동자를 반짝이며
작은 손 쳐들어 가리킨다
재미나는 만화영화
쇠메도 호비도 있단다
흥미로운 세계명작동화집
신데렐라 피터판도 있단다

기뻐한다
금시 딸애의 얼굴
순간에 생기를 찾는다
아프다고 칭얼대던 딸애가
소리치며 좋아한다

누가 말했던가
즐거운 마음은
건강의 근본이라고
웃음은
병치료의 첫 단계라고

가슴 쿵 치는 생각이여
진정 이 병원 동화세계속에
그런 신비한 묘술이 있어
저렇듯 딸애가 아픔을 잊었는가
그늘졌던 얼굴에 웃음꽃 피여나는가

옥류아동병원!
어린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세워주신 우리 원수님
후대사랑의 그 세계속에 있어라
아 동화의 세계도
웃음꽃을 피운 신비한 묘술도

류다른 정경

유치원의 놀이장에 온듯
여기선 우는 애를 찾아볼수 없구나
울긋불긋 갖가지 놀이감들이
동심 맞게 갖춰진 놀이기구들이
어서 오라 반기는 실내놀이장

치료실에서 주사맞고

울상이던 아이도
약이 쓰다 투정질하던 아이도
언제인듯싶구나
흥에 겨워 좋아라 뛰노누나

기뻐 웃는 엄마들
정답게 찾는다
사진기를 쳐든다
금별아! 옥이야!
여기 봐라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아이들 너도나도 소리친다
엄마! 같이 놀자요!
떠들며 소리치는 아이들
그와 함께 뛰놀고싶은
엄마들의 충동이여

치료실과 약만이 병을 고치던가
사려깊은 어버이의 그 손길은
또 하나의 치료실
또 하나의 명약을
아이들에게 주었거니
옥류아동병원의 류다른 정경이여

병원속의 학교

손주가 좋아하는 사과구럭을 들고
입원실 찾아온 할머니
며느리에게 물어본다네
《철이는 어디 있느냐?》
《학교에 갔어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가는
할머니의 속생각
병원에 가면 학교에 못간다고
발구르며 울던 애인데…
웬 일인가 학교에 가다니?

그 물음에 대답이나 하듯
또랑또랑 울리는 배움의 글소리
풍금맞춰 들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할머니의 심금을 울리여주네
다그쳐 걷는 할머니의 발걸음

마침내 교실문에 다달은 할머니
살그머니 들여다보니

에그머니 정말!
환자복을 입은 철이 칠판에 나가
또박또박 글자를 써가는 모습
참말 대견도 하구나

핑 눈굽을 적시는 할머니
아파서 교실에 못가는 날이면
선생님이 입원실에 찾아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준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세심한 그 사랑

할머니 고마움의 눈길 들어
교실안의 손자를 이윽토록 바라본다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인가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양실
년령별로 꾸려진 배움의 터전이여

넘쳐흐르누나 아이들 얼굴마다에
중단없이 수업을 받는
배움의 희열이
입은것은 환자복이여도
하나같이 반짝이는 눈동자들
저들을 어찌 앓는 아이들이라 하랴

철이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병원이냐? 학교냐?
감동에 감격에 젖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노래처럼 들려오는 철이의 대답소리
할머니! 난 사랑의 궁전에 있어요!

직승기착륙장

창밖을 내다보던 옥이와 철이
호기심어린 눈동자 반짝
의사선생님에게 물어보네
선생님,
저 둥그런 원은 무엇이나요?

순간 망설이는 선생님
흰 원속에 착륙표식을 한
직승기착륙장
5살 난 옥이와 철이에게
어떻게 말해줄가?

선생님 마음속에 뜨겁게 울리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을 헤쳐
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신 **김정은**원수님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직승기착륙장도 꾸려주어야 한다시던
사랑의 그 말씀

무엇이라 말해줄가?
주신 사랑 적으신듯
놓친것이 없는가
더해줄것이 없는가
하나하나 헤아려보신
어버이의 안광이 비껴간 저 착륙장

진정 무엇이라 말해줄가?
옥류아동병원을 어린이들의 궁전으로
손색없이 꾸려주실 어버이의 진정
번듯한 포장면
점 하나 선 하나에도
뜨겁게 어려있는 저 착륙장을

초롱초롱 빛나는 두쌍의 눈동자
대답을 기다리는 철이와 옥이에게
선생님은 말해주네

《얘들아! 저기는 하늘에서
아버지원수님 사랑이 내리는 곳이란다!》

더 밝게 웃어라

집에서는 병원에 안가겠다
애를 먹이던 철부지아이들
퇴원을 앞두고 또 떼질하네
《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환자복을 안벗겠다 달아나는 아이들
웃음속에 바라보며
부모들은 눈굽을 적시네
얼마나 정들었으면
얼마나 재미났으면

어찌 그렇지 않으랴
병원에 있어도
정다운 학교에 있었고
병원에 있어도
즐거운 놀이터에 있은 아이들

집을 떠났어도
맛있는 영양음식 정성들여 해준
살뜰한 어머니들이 여기 있어라
지극한 정성으로 병을 고쳐준
고마운 선생님들이 여기 있어라

어머니들이 많은 집
선생님이 많은 집
한층한층 매 층마다에
사랑의 해빛이 따스해
아픔에 그늘졌던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피워준 사랑의 집이여

어서 떠나거라 아이들아
사랑속에 병을 고친 행복동이들아
어버이 세워주신 사랑의 집들이
너희들의 앞길에 줄지어있단다
더 밝게 웃어라
어버이의 품에 안긴 조국의 미래여!

시초

꽃다발서정

— 한 녀성방직공혁신자의 고백 —

김 송 림

무거운 꽃다발

가슴에 넘쳐납니다
3.8절 이날에
내 받아안은 축하의 꽃다발
나의 가슴에
아름차게 안겨진 꽃다발

1.4분기계획 남먼저 수행한 자랑
그 기쁨속에 즐거운 이날이건만
정녕 마음엔 가볍지 않습니다
가슴에 무득한 꽃다발들이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 더 많아
하루를 십년으로 주름잡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라고

꽃다발은 쿵ㅡ쿵
이 가슴 울려주는것입니까

애국으로 불타는 맘
지지 않는 꽃으로 붉게 피라고
이 심장에 속삭이는 꽃다발
조국에 내 바쳐온 땀의 무게에 비하면
가슴에 넘치는 이 꽃다발
아, 너무도 무거워! 무거워!

행복의 꽃다발

누가 말했습니까
녀성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
녀성의 일생은
부엌에서 절반 흘러간다고

허나 솔직히 고백하노니
내 머리얹은 그때부터
살뜰한 주부로 집살림 가꾸어간
그런 날이 몇날이나 있었습니까
늦은 밤 집문 열고 들어서던

그런 날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엔 늘
남편과 아이앞에 죄스러운 마음뿐
그럴 때면 그이는 말하군 합니다
나야 제대군관이 아닌가고
숱한 병사들 돌보던 내가
한집안살림 못돌보겠는가고

눈물겹도록 고마운 그대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미더운 남편입니다
내 받은 축하의 이 꽃다발들
남모르는 당신의 수고가
송이송이 곱게 피운것 아닙니까

그 진정 너무 고마워
나는 눈물로 두볼을 적십니다
내 가슴에 안겨진 이 많은 꽃다발들이
어찌 축하의 꽃이라고만 하겠습니까
남편의 정 남편의 사랑이 피운
아, 행복의 꽃다발입니다

생각깊은 꽃다발

무심히 대할수 없습니다
이날이면 내 가슴에
무수히 안겨지던 꽃다발들
내 꽃다발에 에워싸인 이 시각에도
멸시와 질시로 짓밟혀사는
비참한 녀성들 그 얼마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주고싶습니다
이 꽃다발 한송이한송이
내 누리는 행복의 모든 권리를
녀자로 태여난탓에 천대와 멸시로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 모든 녀인들에게

소리쳐 말해주고싶습니다
이 가슴에 뿌듯한 엄마의 긍지를
날바다속에 수장된 애어린 자식들
찢기는 가슴에 묻고
한많은 세상 절규하며 울분터치는
남녘의 불행한 어머니들에게

녀성의 날이여서 세상의 모든 녀성들
누구나 꽃다발속에 떠받들리는것입니까
내 만약 이 땅에 태여나지 못했다면
생각할수 없습니다 꽃속에 웃는 내 모습
3.8절은 허무한 인생의 하루로 눈물겨웠으리니

해빛같이 따스한 어머니손길로
살뜰히 보살피고 가꿔주며
이 나라의 모든 녀성들
꽃이라 불러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뜨겁게 새겨보는 그 은정이여
가슴에 안아 생각깊은 꽃다발이여

보답의 꽃다발

한두대의 방직기 다루는것만으론
내 자존심 허락치 않아
교대시간까지 일하는것만으론
도무지 이 가슴에 성차지 않아

5개년계획수행 첫해의 문을
남먼저 열어제낄 불타는 열의

높뛰는 이 가슴에 끓어번집니다
만가동 만부하 직기마다에
기적창조의 동음으로 드높습니다

자력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소리 맞추며
혁신의 낮과 밤 이어가는
방직공의 이 자랑 이 긍지여

바치렵니다 애국의 피끓는 심장
드리렵니다 내 부끄럼없이
조국이여, 그대 나에게 안겨준
축하의 꽃다발 영예의 꽃다발우에
내 수놓는 아름다운 비단필로
보답의 꽃다발 삼가 정히 엮어!

편시

평범한 사람들이 엮어준 노래

리 송 일

장엄한 투쟁은 위훈을 낳고
위훈은 아름다운 노래를 낳는가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기중기며 몰탈혼합기 동음소리도
장중한 관현악의 선률인듯

여기서는 겉보기엔 수수한 사람들도
날마다 혁신의 불꽃을 날리며
새라새로운 건설신화 창조하고
여기서는 귀전에 스치는 말 한마디도
거대한 메아리로 심금 울리나니

이 들끓는 건설전역 한복판에서
격동된 심혼의 노래 나는 부르노라
혹심한 도전과 장애 과감히 짓뭉개며
기세차게 전진하는 인민의 노래
평범한 사람들이 엮어주는 노래를

우리도 병사라오

기초굴착때부터 경쟁한다오
거의다 아버지들인 건설자들이
피가 동이로 샘솟는 병사들과
누가 먼저 만장 덮나 겨룬다오

병사들이 한삽 뜨면
자기들도 한삽
병사들이 한층 올리면
자신있다오, 자기들도 한층

처음에야 어슷비슷할테지만
한두층도 아닌 초고층아빠트인데
어림이나 있겠소
욱 하면 땅크같은 병사들한테…

결과는 불보듯 뻔하오
그런데도 그들은 어벌이 크오
늙은 말이 길을 안다며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한다오

어디서 생기는 배짱들인지
걱정군들은 저레 물러들 나라오
근육 울뚝불뚝한 병사들 힘자랑에
자기넨 기술로 맞서겠다오

그래도 병사들한텐 못이긴다니
자기들도 병사라오
착공식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군인들과 나란히 건설전역에 세워주신
자기들도 명령받은 병사들이라오

노래하고싶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녀인입니다
함치르르한 머리채에 보름달같은 얼굴
반달눈이 웃을 땐 꽃들도 무색해할
자식가진 어머니여도 처녀같은 선희

이름처럼 마음도 비단결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든 집 떠나
건설자들이 남편인듯 자식인듯
돌격대의 살림살이 맡아안은 녀인

아침마다 깨여보면
온밤 잠자리 지킨 어머니손길인듯
깨끗이 빨아 말린 장갑이며 작업복들
새날의 혁신에로 건설자들 떠밉니다

휴식참이면 가슴가슴에 즐거이
작업장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가 살뜰히 권하는 한공기 물도
건설자들의 사기 북돋아줍니다

용모와 마음씨만이 아닙니다
끼니마다 푸짐한 밥상 차리는 솜씨
알뜰살뜰 침실들 거두는 그 손탁…
어림도 없습니다 사내들은

아, 처녀시절도 조국보위에 바친
아름답고 강의한 녀인
오늘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뜨락 지켜선
수도건설자들의 어머니를
나는 소리높이 노래하고싶습니다

삼태자이야기

자랑찬 혁신의 소식만이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추동하던가
방송차에서 울려퍼지네
513번째 세쌍둥이가
평양산원에서 출생한 소식

삽시에 건설자들 떠들썩
나라가 흥하는 징조라며
너도나도 자기 집 경사런듯
땀젖은 얼굴들에 웃음발 피는데

덤덤히 손가락들 꼽아가며
무엇인가 속구구하던 용접공아바이
야단났단다
해마다 세쌍둥이 늘어만가니
이거 정말 큰 야단이란다

웬 말인가 의문어린 눈길들
어리벙벙 용접공아바이 바라보는데
그의 능청 명배우 찜쪄먹겠네

세쌍둥이들 보금자리 다 마련하자면
하루에 한층으론 어림도 없단다

그 말에 타입공들 걱정말란다
녀인들도 하는 일
사내들이 못하면 될말이냐며
자기들도 삼태자 낳겠단다, 하루 세층!
장쾌하구나 건설자들 그 배심

로동안전모

작업장에 진출할 때면
건설자들 쓰는 로동안전모
그것이 나에겐 왜 그리도 돋보이는가
최전연병사들 철갑모처럼

그렇게만 생각되더라
받은 명령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기에
철갑모 쓰고 나서는 병사들처럼
날마다 완공의 날 그려보며
로동안전모 쓰고 나서는 건설자들

그러하더라 여기서는
찬이슬에 몸젖고 눈속에 손발 얼어도
순간도 참호를 뜨지 않는 병사들처럼
비발치는 폭우 뜨거운 땡볕속에서도
작업장 떠나는 건설자들 없거니

조국의 촌토, 인민의 안녕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병사들처럼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땀과 열정 아낌없이 바쳐가는 건설자들

그들의 로동안전모에 슴배였어라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뜻 정히 받들어
낮과 밤 흘려가는 기적의 땀이
완공의 날 향해 비약해가는
수도건설자들 삶의 순간순간이

아, 병사들 위훈깃든 철갑모처럼
로동안전모가 내 마음에 속삭이누나
최악의 도전 박차며
이 땅우에 거대한 건축군 떠올리는
수도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을

불타는 새벽

별들도 조으는 이른새벽
처녀는 조용히 침실문 나선다
한손엔 비자루
한손엔 바께쯔를 들고

자박, 자박…
남몰래 숙소구내 벗어나는 처녀
미진된 과제 수행하려는가
아빠트입구로 들어선다

울퉁불퉁한 콩크리트바닥엔
아직 장식돌도 깔지 않았는데
어인 일인가
첫 층계부터 쓸어오르는 처녀

처녀에게 물어야만 알랴
건설자들 누구나가 간직한 마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언제 건설장에 찾아오실가

인민의 행복이 움트는 건설장들
그 어디나 찾아가시여
험한 곳도 허물없이 돌아보시는 그이
이 새벽에라도 문뜩 오실것만 같아
한층두층 정성을 들이는 처녀

아, 별들도 조으는 이른새벽
처녀는 건설장에 충성의 마음 수놓아라
그리움 불타는 그 마음 비끼여
건설장의 아침노을 더욱 불타라

여기서는 환히 보인다

손꼽아 헤여보자
착공의 그날부터 몇날이나 흘렀던가
초고층아빠트 정점에 서니
1만세대 새 거리가 환히 보인다

드넓게 뻗어간 대통로에는
이미 가로수들 푸르렀구나
키돋움하며 일떠선 아빠트들엔
벌써 새집들이경사가 난듯

아빠트 창문들마다에 어리여와라
행복의 보금자리 펼 인민들 모습
창공높이 날아예는 저 제비들은
이 하늘에 꿈 펼칠 아이들 모습인듯

얼마나 행복하고 흥에 겨우랴
이제 이 거리를 누비며
유치원으로 학교로 오고갈 아이들은
그들의 손목 잡고 웃고웃으며
한껏 기쁨에 겨워할 사람들은

이제 이 거리에 넘쳐날 웃음이
련이어 일떠설 거리들로 흘러가고
나날이 넘쳐나는 기쁨은
온 나라에 물결쳐 파도치리니

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여기서는 환히 보인다
김정은원수님 따사로운 손길아래
내 나라 방방곡곡에서
나날이 만발하는 인민의 행복이!

시집 복받은 삶의 노래

편　집　신홍섭
장　정　채대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0월 11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0월 14일

ㄱ－1511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7－0